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 동기

- 탈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보석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차 례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 (1) 개념정의 - 새터민과 탈북자
- (2)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변화
- (3) 북한 내 계층 폐쇄성과 차별
- (4) 탈북자들의 재북 출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통계자료

3. 접근방법(분석틀) 과 연구대상

4. 연구문제

5. 각 재북 계층별 탈북 사례

- (1) 북한 상류층의 탈북 사례
 - SMI(1987년 생, 여자, 2008년 탈북/입국)
- (2) 북한 중류층(중상류층)의 탈북 사례
 - CMI(1989년 생, 여자, 2006년 탈북/입국)
- (3) 북한 하류층의 탈북 사례
 - KMI(1986년 생, 남자, 1998년 탈북, 2002년 입국)

6. 사례 분석

- (1) SMI의 사례 분석
- (2) CMI의 사례 분석
- (3) KMI의 사례 분석
- (4) 사례 간 분석

7.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기존 통계자료 예시

1. 문제제기

북한 권위주의/공산주의 정권의 체제 불안정성에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¹⁾ 독재체제/공산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은 경제난/식량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비합리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사회구조의 경직/비효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과정에서도 이미 관찰된 바 있다.²⁾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체제 불안정성이 북한의 주민들을 해외로 배출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들을 남한으로 흡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북한주민의 탈북과 남한 유입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식량난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에 탈북민이 급증한 뒤 북한에서 식량난에 따른 사회혼란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 2005년을 제외하고는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곧, 탈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 입국 현황('09.1 현재)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1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6	5,163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158	10,108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14	15,271
여성 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74%	66%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unibook.unikorea.go.kr/new2/dataroom/sub_07.jsp?kind=read&str_aid=968&str_c_page=2, 2010. 3. 7.)

1) A. Scobell, "Projecting Pyongyang: The Future of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2008 참조.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844>, 검색일 2010. 3. 7.)

2) Richard Crockatt, "The End of the Cold War", J. Baylis & S.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1997, pp. 89-108.

3) 곽해룡, 『북한이주탈주민현황과 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58쪽.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통일의 방향이 흡수통일이나 중립국화나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통일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내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출신성분과 탈북 이유를 분리하여 각각의 통시적인 변화에만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출신성분과 탈북 이유를 연계하여 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체제 불만으로 인한 탈북 가능성이 크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생활 고로 인한 탈북 가능성이 클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와 비(非)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탈북이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구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 내부의 중류층도 경제적 이유에 따라 탈북을 하는지, 아니면 하류층만 그러한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출신성분에 막혀 계층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의 평생은 출생 시부터 그 틀이 짜여져 있다. 곧,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탈북 동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탈북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 새터민과 탈북자⁴⁾

‘북한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 ‘북한 주민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등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자 등이 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우리말로 정치색이 없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탈북의 시작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북한이탈

4) 김인혁,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 정경환 편, 『북한인권문제의 실제적 해부』, 이경, 2006, 90쪽.

주민', '탈북자' 등의 용어와는 달리 '새터민'은 남한 정착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서 북한 주민의 탈북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새터민'과 유사하지만 분명 다른 용어로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자' 등이 있다. 이 용어들은 탈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와 의미는 같으나 '탈북자'라는 용어가 유발하는 거부감과 이 용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개정된 용어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경제성과 편의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신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변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던 탈북자 수는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게 90년대를 넘어오면서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에 의존하던 북한 경제는 90년대 초 구소련과 동구권 해체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⁵⁾ 이로 인한 농업생산의 악화에 1995년 흉수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주의 요체인 중앙배급체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였다.⁶⁾

탈북민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식량난이 결정적이었지만 이미 식량난에 의한 탈북 유인이 감소한 2000년대⁷⁾에도 탈북은 줄지 않았다.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형태의 탈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⁸⁾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의 이유는 그 이외에도 다양하며 결코 획일적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유의미한 탈북 동기는 경제난(생활고), 체제 환멸(체제불만), 이미 탈북한 가족의 권유(동반탈북),

5) 곽해룡, 앞의 책, 45쪽.

6)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13쪽.

7) 이미 매우 큰 식량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제적 지원과 식량생산 증가로 식량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이다.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부산대학교, 2001, 6쪽. (곽해룡, 앞의 책, 58쪽에서 재인용.)

8) 곽해룡, 앞의 책, 58쪽.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처벌 우려의 경우 체제불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중국 정착이나 가정불화는 대부분이 위의 세 가지 동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탈북 동기를 주요 틀로 이용할 것이다.

<표 2> 탈북 동기별 현황(2004년 6월말 현재)

구분	생활고	처벌우려	체제불만	동반탈북	중국정착	가정불화	기타	계
'00	127	66	52	51	13	2	1	312
'01	293	73	33	171	7	2	4	583
'02	606	93	96	259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6	463	44	63	148	2	39	1	760
계(%)	2263 (55.53)	356 (8.74)	367 (9.01)	823 (20.2)	105 (2.58)	135 (3.31)	26 (0.64)	4,075 (100)

출처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54쪽, 2005.

(3) 북한 내 계층 폐쇄성과 차별⁹⁾

북한의 헌법은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다.¹⁰⁾ 하지만 북한은 해방 이후 수차례의 성분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계급적 배경과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여 주민들을 구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기본군중/복잡군중의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와 같은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가 당 가입 여부와 같은 개인의 지위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승진, 배급과 같은 일상 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한다.

핵심군중이란 소위 북한의 통치계급으로서 1%의 고급간부(특별계층)와 27%의 중하위급 간부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항일혁명투사와 가족, 6·25전쟁 전사자의 유가족 출신으로서 북한 당국은 이들만을 위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별계층은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자가용 차와 전화를 소유할 수 있고 외국출판물이나 외국방송을 보는 것 역시도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참조.

10) 1998년 북한 개정 헌법 제 65조.

기본군중은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자들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한다. 이들은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더불어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다. 이중 일부는 충성도에 따라 핵심군중이 되기도 한다.

복잡군중은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자들로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적대시 되는 계층이다. 과거 지주나 자본가의 가족 출신, 일제 하 공직자 가족, 당원자격이나 간부에서 밀려난 자, 정치범 등이며 진학이나 입당 등 여러 분야에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성분에 따라 개인의 거주지역도 차등화된다.¹¹⁾ 특히 평양에서 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평양 주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들로서 각종 특혜를 받는 핵심군중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내부에서의 계층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할 것이다.

(4) 탈북자들의 재북 출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통계자료¹²⁾

서론에서 밝혔듯이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09.1월 현재)>과 같은 통일부의 공식 통계자료나 여러 연구에서 인용, 조사하여 이용하는 탈북자에 대한 통계 자료에는 연도별 입국자 수, 연령별 유형, 재북 직업별 유형, 재북 학력별 유형, 재북 거주 지역별 유형 등으로 탈북자의 출신성분이 매우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과 탈북 이유가 연계되어 분석된 적은 없다. 또한 직업 분류와 같은 일부 분석에서는 북한사회의 기준이 아닌, 남한사회의 기준에 따라 분석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곧,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북한 내부의 핵심군중/기본군중/복잡군중의 구분을 통해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1) 거주지역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평양이나 남포, 해변가나 휴전선 등에서는 거주를 하지 못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참조.

12) * 부록 : 기존통계자료 예시. 참조.

3. 접근방법(분석틀)과 연구대상

탈북이유의 범주화는 '(2)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변화'에서 살펴봤듯이 체제 환멸, 이미 탈북한 가족의 권유, 경제난 이렇게 세 가지로 수렴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틀을 이용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범주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들과 달리 북한내부의 잣대를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이유와 사회·경제적 지위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지위요소로서 유의미한 당원여부, 거주지역, 직업을 이용하여 탈북자의 계층을 핵심군중/기본군중/복잡군중 중의 하나로 규정할 것이다.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까지도 당원여부/거주지역/직업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3) 북한 내 계층 폐쇄성과 차별'에서 살펴봤듯이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계급적 성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 : 당원여부/거주지역/직업에 따른 객관적 지위

이를 통해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계층을 파악할 것이며 계층별로 어떤 동기에 따라 탈북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이유의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수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복지시설 관계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설문조사가 그들의 입지나 복지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꺼린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 군중의 전형성을 띠는 탈북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으로써 각 계층별 탈북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0년대에 들어 입국한 탈북자들 3명과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나이가 서로 비슷한 20대 초반의 탈북자들로서 북한에서의 거주지역과 부모의 직업 등에서 대체로 각 계층의 전형성을 보이는 이들이었다.

4. 연구문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출신성분에 막혀 계층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의 일생은 출생 시부터 그 틀이 짜여져 있다. 곧,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탈북의 이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탈북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요소들과 탈북이유를 각각 분리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면 이 연구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 이유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 군중의 탈북 이유는 각각 어떠한가?
- 둘째, 각 계층이 나타내는 탈북 이유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 셋째, 경제적 이유에 따른 탈북은 모든 계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가?

5. 각 재북 계층별 탈북 사례

(1) 북한 상류층의 탈북 사례

- S씨(1987년 생, 여자, 2008년 탈북/입국)

S씨는 평양출신이다. S씨의 부모 모두 당 간부였다. 아버지는 과거 대남방송을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어머니는 대학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씨는 자기 집의 형편이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S씨의 아버지는 S씨가 어렸을 적부터 남한의 TV프로그램을 보여줬다. S씨도 어떻게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자기 집에서 볼 수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대남방송 책임을 맡았던지라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S씨의 아버지는 S씨에게 남한 TV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아닌 TV 속의 사회가 진짜 세상이며 S씨가 커서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워낙에 모범생이었던 S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으며 사춘기에는 아버지를 간첩으로 신고하려고까지 했다.

S씨가 학창시절 말에 친했던 단짝 친구들은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우등생들이었지만 우연히 모두 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S씨의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장(남한의 총장에 해당)이 굶어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S씨는 자신보다 뛰어났던 친구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고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배급도 많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대학 학장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면서, 자신은 대학에 갈 실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도 크게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몇 년 간 중국에 다녀오게 되었다.

중국에 가서 또 다른 세상을 본 S씨는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잘못된 사회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북한으로 돌아온 S씨는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바뀐 생각을 말하고 이제 자신은 남한에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 시기 S씨의 아버지는 자신은 북한에 남을 것이며 하나뿐인 딸 역시 떠나보낼 수 없다면서 S씨를 만류했다. 물론 S씨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S씨가 남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S씨는 부모로부터 탈북을 허락받았다. 북한 모든 가정은 TV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TV가 수신되는 집은 많지 않다. 하지만 S씨의 집은 특별히 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종종 이웃들이 와서 같이 TV를 보곤 했다. 어느 날 이웃들과 같이 중국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자막을 읽기도 전에 중국어를 듣고 웃는 S씨를 수상히 여겨 이웃주민이 후에 S씨를 신고했다. 불법으로 중국에 다녀온 것을 짐작하여 신고한 것이었다. S씨에 따르면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는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한다. 보위부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온 S씨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된 S씨의 부모는 결국 S씨가 혼자만이라도 탈북하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S씨의 어머니가 S씨를 국경근처까지 바래다주었고 S씨는 뇌물을 써서 국경을 쉽게 통과한 뒤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2) 북한 중류층(중상류층)의 탈북 사례

- C씨(1989년 생, 여자, 2006년 탈북/입국)

C씨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다. C씨의 부모 모두 당원이었지만 간부를 역임한 것은 아니었다. C씨는 아버지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미용사로 일했다고 했다.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C씨의 부모는 모두 장사를 했다.

C씨의 경우는 북한에서 특별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식량난이 터진 직후

에는 배급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이 적응 방식을 터득하면서 (예를 들면 장사) 굶어 죽는 일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고 C씨는 밝혔다. 실제로 학교 급우들 중에서도 매우 가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소수일 뿐이었다고 한다. 그의 집안 형편 역시 불우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별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C씨는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 학제로 고등학교 3학년일 당시, 중앙에서 파견된 당 간부가 C씨를 스카웃하려고 했다. 당의 스카웃 절차로서 출신성분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던 중, 몇 년 전에 행방이 묘연해진 할머니가 지적되어 C씨의 스카웃은 좌절되었다. 이를 계기로 C씨와 C씨 가족은 할머니의 행방불명이 자신들의 사회 활동을 다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기, 마침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한국 드라마 DVD를 보게 된 C씨는 북한 이외의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행방불명에 따른 북한에서의 삶의 제약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드라마)를 접한 것이 탈북을 생각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의 가족은 행방이 묘연해진 할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원래 이남 출신인 할머니가 고향이 그리워서 남한으로 넘어온 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데려오고자 브로커를 통해 연락한 것이었다. 북한에 계속 남을지 아니면 할머니를 따라 남한으로 넘어갈지에 대해 C씨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당원이 탈북을 시도하거나 가족이 동반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때에는 실패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C씨의 가족들은 한꺼번에 남으로 넘어오지 않고 C씨와 C씨의 어머니가 먼저 남으로 넘어오기로 결정하였으며, C씨는 이때 탈북했다.

(3) 북한 하류층의 탈북 사례

- K씨(1986년 생, 남자, 1998년 탈북, 2002년 입국)

K씨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다. 부모 모두 비(非)당원이었다. K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됐고 어머니는 광산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배급이 끊기자 장사를 하러 중국으로 떠났다.

K씨가 어렸을 적 어머니는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면서 K씨를 아는 사람의

집에 맡겼다. 그러나 그 집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K씨는 삼지연의 친척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친척집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는 다시 어머니가 맡겼던 지인의 마을로 돌아갔다. 그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K씨는 그 집에서 돈을 훔쳐 그 지역에서 돈을 쓰다 발각되었고 크게 벌을 받았다.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K씨는 중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에서 지낼 것이라고 말해줬던 곳을 기억하여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북한에 돌아갔다고 하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 돌아온 뒤 K씨는 우연히 헤어졌던 누나를 만나 같이 어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크게 반가워하지 않았고 K씨의 가족은 가족회의 끝에 다시 흩어지기로 했다.

중국으로 다시 넘어온 K씨는 선교회 아래에서 지냈다. 그는 탈북 어린이들을 잡으려는 중국 공안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선교회에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친 뒤로는 선교회를 떠나 피신해 있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검문을 피해 도망치기도 여러 차례였다.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다가 다시 선교회로 돌아간 K씨는 얼마 후 고생을 끝내고 남한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베이징으로 향했고 캐나다 대사관 진입에 성공하여 남한에 올 수 있었다.

6. 사례 분석

(1) S씨의 사례 분석

‘핵심군중/기본군중/복잡군중’의 계층 구분 틀에 따른다면 S씨는 북한에서 핵심군중, 그 중에서도 1%의 특별계층에 속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의 부모 모두 당원이었고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평양시민들조차 쉽게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중국사회 경험에 따라 북한체제를 환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S씨가 당시 느끼던 북한사회에 대한 환멸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을 미뤄볼 때, 그는 부모의 반대가 완강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탈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자기 집안의 경제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것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의 경제 수준과 비교하여 표현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학교 학장이 굶어 죽었고 대학교수인 어머니가 받아오는 배급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뤄 볼 때, 당시 S씨 가정의 경제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특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제적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세계 경험이 북한사회 자체에 대한 환멸을 촉발, 탈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C씨의 사례 분석

C씨의 경우는 기본계층 중에서 평균보다는 위에 속하는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청진은 해안가에 위치하는 중소도시로서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에는 살 수 없다.¹³⁾ 그리고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중소도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계층들이 거주한다고 한다. 또한 C씨 어머니의 직업이 기술직(미용사)이었다는 점과, C씨의 부모가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경제 형편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C씨는 북한에서 기본군중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C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전에 탈북한 가족의 권유 때문이다. C씨와 그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따른 성분 제약에 대해 소극적인 불만을 가졌을 뿐,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대단한 장애요인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성분 제약을 받은 뒤로도 계속 당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곧,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탈북을 감행한 것은 아니었으며 C씨의 탈북은 이미 탈북한 뒤 한국에 정착한 가족의 권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K씨의 사례 분석

K씨의 증언에 따르면,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곧바로 남한행을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행을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한다. 따라서 K씨보다 최근에 일어난 복잡군중의 탈북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한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곧 S씨나 C씨의 탈북시기와 K씨의 입국 시기가 어느 정도 간격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한계는 국내의

13)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참조.

탈북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본 연구의 특성에 비쳤을 때 부득이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K씨의 지위는 매우 주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모두 비당원이었고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었던 데다 어머니가 광산 식당에서 일했다는 점, 살던 곳이 함경북도 무산이었다는 점은 그가 북집군중에 속했음을 말해준다. K씨가 탈북을 했던 이유는 경제난에 따라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탈북행위는 가족해체에 따라 일어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사례 간 분석

C씨나 S씨는 외부세계가 북한보다 좋다는 비교·판단에 따라 탈북했지만 K씨는 외부세계에 대한 비교와는 상관없이 탈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K씨의 경우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도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S씨와 C씨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탈북을 감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S씨와 C씨 모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탈북을 결정했지만 그것이 단편적인 정보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S씨는 어렸을 적부터 남한의 TV프로그램을 봤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살았다. C씨도 한국 드라마 DVD를 접한 적이 있지만 이는 단지 다른 세상의 존재를 깨닫는 정도에 그쳤다고 했다. 곧, 문화충격이나 체제 불만 등은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례 모두 북한 내에서 접했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체제에 대한 환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완전하게 허용하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역시 완전히 개방했던 소련¹⁴⁾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도 폐쇄적/통제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리 외부 정보가 몰래 유통된다 하더라도 통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양이나 질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면 정보의 확산이나 그에 대한 의견 공유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 탈북자 3명 모두, 어렸을 적부터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에 살 당시에는 체제에 대해 크게 부당함을 느끼지 못했으며 외국에 나가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2000년대에 들어 외부세계 직접 체험이 수많은 탈북을 유발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한다.¹⁵⁾

14) Richard Crockatt, *Op. cit.*, pp. 89~108.

15)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12쪽.

그렇다면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탈북 이유, 즉 외부세계 경험에 따라 생긴 체제에 대한 환멸로 인한 탈북, 이미 탈북한 가족에 의한 동반탈북, 경제난에 따른 탈북은 각 계층만의 고유한 탈북 동기로 볼 수 있는가?

<표 3> 분석 결과 - 탈북 동기와 계층 간 연관성

탈북동기	체제 환멸	동반 탈북	절대빈곤(경제난)	절대빈곤+상대빈곤
계 층	핵심/기본	기본/복잡	복 잡	핵심/기본/복잡

우선 외부세계를 직접 경험함에 따라 일어나는 체제 환멸과 그로 인한 탈북은 핵심군중뿐만 아니라 기본군중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핵심군중뿐만 아니라 기본군중의 경우도 해외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해외 파견 근무자와 별목공들의 탈출이 생겨났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¹⁶⁾ 그러나 계층/직업상 해외경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복잡군중은 해외경험과 이에 따른 체제 환멸로 탈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짐작된다.

둘째로 이미 탈북한 가족에 의한 동반탈북은 핵심군중보다는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핵심군중의 경우는 처음부터 남한출신자가 출신 성분부에 따라 제외되기 때문에¹⁷⁾ 동반탈북 자체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반면 기본군중이나 복잡군중의 경우는 이미 많은 수가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따라 동반탈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경제난에 따른 탈북은 현재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복잡군중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C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북한에서는 장사 등을 통해 배급이 없이도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장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는 형식적 조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¹⁸⁾ 기본군중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복잡군중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뇌물을 내거나 장사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C씨의 경제 여건을 기본군중의 전형적인 경제 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북한의 기본군중들은 안정된 생활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16)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앞의 글, 12쪽.

1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참조.

18)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참조.

점에서 미뤄본다면 현재 북한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경제난에 따른 탈북은 대부분이 복잡군중에서 일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추론해본다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절대 빈곤(경제난) 뿐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 빈곤 역시 탈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씨 경우, 핵심군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작다는 판단이 외부세계 경험을 통해 확실해졌고 그것이 체제 환멸로 이어졌다. 아무리 외부세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신이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했다면 S씨는 탈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곧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이 작다면 북한의 상층 역시 상대적 빈곤을 느껴 탈북할 수 있는 것이다. C씨의 증언에 따른다면 기본군중의 경우는 생계를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기본군중 역시 외부세계의 정보를 통해 상대빈곤을 인식할 유인은 충분하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탈북동기 - 체제 환멸, 동반탈북, 경제난 - 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7. 결론

탈북자가 왜 탈북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북한의 변화는 역동적이므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 역시 이에 맞춰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탈북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자의 출신이나 탈북 동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려 노력해왔고 각 요소들의 통시적인 변화에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 동기를 연계하여 공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와 같은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를 북한 정권이 규정하는 3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전형적인 사례에서 탈북 동기를 살펴봤다. 그리고 각 사례에서 나타난 탈북 동기가 다른 계층의 탈북요인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 출신의 핵심군중으로서 2008년에 입국한 S씨의 탈북 동기, 청진 출신의 기본군중으로서 2006년에 입국한 C씨의 탈북 동기, 무산 출신의 복잡

군중으로서 2002년에 입국한 K씨의 탈북 동기를 살펴봤다. S씨의 탈북은 체제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으며 C씨의 탈북은 이미 탈북한 가족의 남한 행 권유 때문이었고, K씨의 탈북은 경제난이 원인이었다. 이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체제 환멸에 따른 탈북이나 가족 권유에 따른 탈북은 단편적이지 않은 외부와의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경제난에 따른 탈북은 북한 내부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세계 직접 경험에 따른 체제 환멸로 탈북하는 사례는 핵심군중뿐만 아니라 기본군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이미 탈북한 가족의 권유에 따른 탈북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90년대 경제난에 따라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탈북, 남한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본다면 경제난에 따른 탈북은 복잡군중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하지만 탈북의 경제적 이유에 ‘외부세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 빈곤 인식’까지 포함시킨다면 복잡군중뿐만 아니라 핵심군중과 기본군중도 경제적 이유로 탈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동기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즉, 계층별 탈북이유는 다를 수 있으며 그 양상 역시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양상은 북한사회의 폐쇄적 차별성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봤다. 본 연구가 확인한 내용들이 보다 확고히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탈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시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외 문헌]

Scobell, A., "Projecting Pyongyang: The Future of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ubs/display.cfm?pubID=844>)

Crockatt, R., "The End of the Cold War", J. Baylis & S.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1997.

[국내 문헌]

곽해룡, 『북한이주탈주민현황과 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 : 탈북자입국지원관련 법률개정 자료집」, 2004.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정경환 편,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출판사, 200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new2/dataroom/sub_07.jsp?kind=read&str_aid=968&str_c_page=2)

한국통일전략학회 편, 『탈북자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출판사, 2006.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인터뷰 자료]

탈북자 S씨와의 인터뷰(2009.11.13)

탈북자 C씨와의 인터뷰(2009.11.15)

탈북자 K씨와의 인터뷰(2009.11.15)

※ 부록 : 기존 통계자료 예시

예시1)

<표 4> 탈북자의 재북 직업별 유형('09.1 현재)

구분	무직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봉사분야	군인 및 공무원	계
누계(명)	7,102	6,206	356	336	150	586	535	15,271
비율(%)	47	40	2	2	1	4	4	100

출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s://unibook.unikorea.go.kr/new2/dataroom/sub_07.jsp?kind=read&str_aid=968&str_c_page=2)

검색일 2010. 3. 7.

예시2)

<표 5> 국내 탈북자의 출신지역 분포 - 탈북에서 입국까지

구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황해도	평양	기타 (중국출생)	계
'00	176	39	34	14	13	15	20	1	312
'01	380	83	43	30	15	17	11	4	583
'02	755	121	95	51	26	39	43	9	1,139
'03	921	150	82	33	25	31	28	11	1,281
'04.6	554	96	21	32	15	7	34	1	760
계	2,786	489	275	160	94	109	136	26	4,075

출처: 탈북자입국지원관련 법률개정 자료집 - 국회의원 김문수, 2004. 13쪽

심사평

장 려 상

김 보 석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와 탈북 동기

- 탈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보석의 리포트는 새터민들의 탈북동기를 재북 계층에 따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은 새터민들을 어렵게 인터뷰하여 새로운 방향의 접근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도 연구자적 열정을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용면에서도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조사연구로서의 형식 및 분석법, 자료 활용의 적절함, 문제의식 등이 두루 돋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1. 문제제기에서 탈북자 문제의 현황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하고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글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기여를 잘 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필자가 신입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칭찬해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의 기량이 한껏 발전해 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 동기를 통계자료를 통해 미리 범주화하고 이 범주를 인터뷰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론의 도출과정이 자의적·도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는 양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뢰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탈북자의 재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분석이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과 탈북 이유가 연계되어 분석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조작하면 필자가 의도하는 바의 양적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지 궁금하다.

양적 분석이 현재 필자의 여건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사정을 밝히고 연구의 한계를 미리 적시해 두는 것이 좋다. 단 세 개의 인터뷰로는 사례가 너무 적어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수준의 인터뷰는 양적 방법의 보조적 사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자는 오직 인터뷰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정교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여력이 안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결론에서도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들을 잘 적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의례적 언급을 하고 넘어 갔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연구방법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훈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사자가 보기에 필자는 연구자로서의 열성, 탐구욕, 문제의식 등 잠재적 자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열심히 정진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고 원(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 연구원 연구교수)